

인권주일 설교

예수님을 따라서

<누가복음 11:33~46>



신 용 섭 목사 (KCC 간사)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신을 가지고 이땅에 오신 신 (神) 이시지만 인권에 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서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남성과 다르게 차별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존경 할만한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1948년 선포된 세계 인권선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인권 해방을 외치며, 억압자들 앞에 내세우는 선언문입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인권선언에서는 첫째,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신앙, 사상, 언론, 학문의 자유) 둘째, 몸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셋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당연한 권리이지만, 80여년 지난 지금도 이 인권선언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관습이나 습관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던 것이 틀렸고,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어떤 항공사에서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가 아닌 바지 착용을 허용한 것을 가지고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인터넷에서 부딪친 적이 있었습니다. 치마를 착용한 모습이 더 예쁘고 단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바지를 착용한 편이 승무원 자신과 승무원에게 의지해야 하는 승객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인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습이나 습관, 사상으로 인해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남자만? 왜 정통주의 유대인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사로잡혀서 오랜 기간 차별과 구별을 만들어 왔던 유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권 차별적 문제들을 예수님께서서는 비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혹은 우리들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처럼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출석을 잘 해야만, 헌금을 제대로 해야만,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등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야 하는데, 부담되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지만 별 받을 것 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종교자들을 비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거기에는 누구도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시대에 반대하는 마치 혁명가와 같은 모습이며, 인권 해방론자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 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닮기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 대 전제에 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누구나 들 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해왔던 것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혁명가, 인권 해방론자의 모습을 조금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므로 사회문제, 인권 문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 문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정치적 배경이 다르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차별 문제는 정치 문제와 다르게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서는 안되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고, “복음” 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복음” 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권차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라 인권 해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서부지방회

말씀의 전도집회 개최

4부 구성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공유

지난 6월 19일 주일 오후, 고베교회에서 서부지방회 전도부와 고베교회의 공동주최로 후지모토 미츠루 목사(임마누엘 타카즈교회)와 특별 음악 게스트 와카마츠 유우코 자매(플루트 연주자, 카와니시 교회)를 초청하여 신앙 회복과 전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말씀과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다.

서부 지방회 각 교회에서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과 간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다.

제1부는 청년 연합팀의 찬양 인도를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제2부는 양육자 권사(고베교회)의 사회로 윤종현 목사(아카시교회)가 기도한 후에 플루트 연주자 와카마츠 유우코 자매의 연주와 간증이 있었다.

제3부는 후지모토 미츠루 목사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제4부는 전도부장 이종재 목사(가와니시교회)의 사회로 교회에 출석한지 2년 미만의 신도 (5명)와 당일 처음 교회 오신 분(1명)에게 선물하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석자들이 참으로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즐거워했다. 또한, 고베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도 하였다.

(보고자: 윤종현 목사)



교토교회

김정운장로 장립식 거행

강영자, 천말선권사취임식, 명예집사추대식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가운데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교토교회 예배당에서 김정운장로 장립식, 강영자, 천말선권사 취임식, 이영혜, 쿠니사키 아키스케(国崎秋助), 유말생, 김명자, 하예자 명예집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임명기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는 부총회장 양영우목사가 '서로 같이 짐을 지는 일군' (갈6: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장로 장립식은 관서지방회장 대행 박영자목사의 사식으로 김정운장로장립식이 거행되었고, 계속해서 강영자, 천말선권사 취임식과 이영혜, 쿠니사키 아키스케, 유말생, 김명자, 하예자 명예집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자매교회인 부산 평광교회에서 김동희목사가 비디오 메시지로 축사를 전해왔다.

금번에 교토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은 김정운장로는 198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오면서 2007년부터 교토교회에 속하여 2014년부터 집사로 섬겨왔다.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 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전국여성회

연수회를 리모트로 개최

코마이 치에 변호사 초청하여 강연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선교사회국)가 주최하는 2022년도 연수회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들로서>, 부제는 '일본에 도착한 난민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입국관리국의 수용 문제'를 가지고, 강사로는 입국관리국 수용 문제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코마이 치에(駒井知会)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전국교회에서 85명이 참가한 강연은 전후반으로 약 1시간 40분 진행되었고, 강연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제 수용되어 비인도적 취급을 받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강사의 말은 마음을 울렸다. 강연이 끝난 후,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폐회기도로 연수회를 마쳤다.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연수회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린다.

(보고: 이민례)



도쿄교회

전삼랑 은퇴장로가 소천

재일한국YMCA 이사장 등도 역임



지난 2022년 7월 29일, 동경교회 전삼랑은 퇴장로가 74년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동경교회에서 김성태목사의 사식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故·전삼랑장로는 1947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동경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1994년 장로로 장립을 받았으며 그 후에 재일 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로 이적하여 2000년에 동경교회 시무장로로 취임하여 2017년에 시무 은퇴하였다.

재일한국YMCA이사, 이사장, 관동지방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KCCJ 西宮教会 牧師招聘

教会の未来のために共に働いて下さる方

連絡先: shukoshinozaki@gmail.com

臨時堂会長 尹鐘憲牧師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한반도 평화포럼 참가

KCCJ에서 평화통일회의준비위원등5명 참가

2022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CBS(기독교 방송국)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포럼’ (주제-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 이 서울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렸다. KCCJ에서는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장 김종현목사, 위원 김신아목사,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 그리고 직전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장 정연원목사, 김병호 중간사가 참석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5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6개의 분야로 나누어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현주소,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현주소, 남남·남북갈등의 변화를 위한 민의 평화 만들기, 통일세대 평화 만들기,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과제, 전체 토론)

첫째 날은 주로 남북의 상황을 아시아 전체적인 상황속에서 보는 아카데미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참석자로부터 국민 국가를 주어로 말하는 지정학적 개념속에 제일 코리아등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교회를 포함한 민간의 활동의 의의에 대하여 다양한 실천 현장, 청년 세대로부터의 발제 토론이 있었다. 남남갈등의 문제로는 보수 진보뿐 아니라 이번 반지하의 홍수피해로 드러난 경제적 빈부격차, 젠더 갈등, 이주민 차별 등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민(民)의 개념으로 people, citizen, multitude등 어떤 존

재를 주체로 보는가, 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순을 보는 정리된 안목이 없이 갈등을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정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젊은 세대로부터의 발제로 아메리카 이주민 지역에서 “공생” 하는 마을 만들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통일보다 탈분단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세계시민” 을 구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분단 토의 프로그램은 한국과 해외 참가자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룹 토의에서 디아스포라 연대를 위한 모임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3일(토)에는 철원 DMZ답사와 순례길 걷기가 있었으며 14일(일) 오후에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합동예배를 드렸다. 평화통일 합동예배에는 조영철 목사와 김병호 중간사가 참석했다.

(보고:김신아목사)



<총회 인권주일예배 기도문 및 교독문>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일본 사회에는 다양한 민족과 외국 국적자들이 서로를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사와 문화, 생활습관과 언어를 서로 존중하며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편으로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희들을 주의 일군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편견의 눈으로 이웃을 보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매일 이 사회의 한 명의 주민으로서, 그 존엄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민 사이에 타문화와의 교류가 더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며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구조가 정비되게 하여주옵소서. 특히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 전 세계가 전에 없었던 곤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지만 더욱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나날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자 : 일본에 사는 외국인주민의 기본인권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은 다양한 차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취업차별, 주거거부, 중오범죄, 중오발언 등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자 : 일본정부의 입국관리행정의 인권침해가 중단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수용된 많은 외국인주민이 비인도적으로 다루어져 지금도 고통을 당하며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사회로 개선되게 하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자 : 외국인주민을 향한 증오발언이 중단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거리에서의 연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거운동과 인터넷상에서 증오를 조장하는 언어폭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범하는 이러한 범죄에 근절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명예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자 :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국어에 의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 자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자 :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하루라도 조속히 “외국인 주민 기본법”이 제정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일본 사회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자 : 코로나사태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Covid19)의 전세계 유행이 확산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나 재입국이 불가능한 노동자, 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곤경과 고통을 돌아보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주소서.

●다함께 :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위원회 제공)

추도문

「오빠 고마워요 !」

김민자 (고쿠라교회 명예집사)

지난 6월 5일 예배후 김민자님은 캐나다에서 소천하신 오빠 故·김해천 원로장로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의 추억과 간증을 했습니다. 무고가와교회 출신의 고인에 대한 추억과 간증을 공유합니다. (小倉교회 주문홍목사)



양친과 김해천 부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3:11)

100년 전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던 조선에서 양친이 결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아버지는 일본에 건너 갔습니다. 얼마후 젊은 어머니는 일본의 아버지 주소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이윽고 4명의 딸이 차례로 태어났고 다섯번째에 오빠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임신중 가혹한 벽돌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태어난 애기는 검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추다! 고추!」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에 대망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기쁨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후에 나와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가시나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청주에서 84세로 돌아가시는 임종때에 일본에서 제일먼저 도착한 내가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의 귀에다 "쓸데없는 가시나가 왔어요." 라고 말하여 모인 친척들을 웃겼습니다.

오빠는 일급 건축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기업에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한국인 차별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일본명 「오오즈카 미노루」로 취직했을 때 작은 회사 사장은 「오! 우리 회사에도 대학졸업자가 오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호적등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것입니다. 몇 년간 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미션스쿨 오사카여학원에 한국인 크리스찬이 많으므로 줄이려는 방침에, 관서지방 청년회가 맥킨토쉬목사님과 항의운동에 참가했습니다. 맥킨토쉬 목사님을 통해서 캐나다가 기술자격을 가진 인재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듣고 응모했습니다. 그 무렵 오빠는 작은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어린이 건강보험도 해당 안되는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기보다 차별이 없는 나라로 가서 살 결심을 하고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여 맥킨토쉬목사님 부친 목장에 신세를 졌습니다.

일본에서 아버지하고 돼지를 친 경험을 살려서 가족4인은 2주간정도 목장에서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일본처럼 밤 늦게까지 잔업이 없어 수요일은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수요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은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이 어렵고 때로는 목사님과 둘이서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일찍 가족보다 먼저 교회에 가서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6월부터 다녔는데 9월에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신자들은 오빠를 독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항상 두 아이를 데리고 나중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계셨지만 집사가 없어서 오빠가 일본에서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로 2~3년 정도하고 장로로 발탁되었습니다.

교회의 집회, 새벽기도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나다 교회는 한국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영어보다 한국어가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70세에 장로직도 은퇴하고 원로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변 조선족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종교활동이 엄하게 금지되어 연변대학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어도 영어도 능숙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무렵 오빠는 중국에서 일본에 몇 일정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고쿠라의 우리집에 오셔서 오빠가 욕조를 사용한후 욕조에는 때가 가득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오빠가 중국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새벽기도회를 빠지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 무렵 캐나다에서는 장녀 미사가 30대후반에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오빠는 약10년간 중국에서 봉사하다가 캐나다에 돌아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오빠도 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선고받고 7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에 맞이하는 88세 생신을 어떻게 축하할까? 의논하면서 부부 둘이서 노인 홈의 수속을 하고 있는 중, 하나님나라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DAD는 Church crazy 아빠는 교회 미친광이" 라고 말했지만 바랬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생애를 바쳤던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 : 7-8)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4일 19시30분 (일본시간 5월5일 오전6시 30분), 오빠 김해천장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오빠였습니다.



2018년 재일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에서